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지난달 3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우린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거행했다. 약 한 시간가량의 레드카펫으로 영화인을 맞이한 이후 전주국제영화제(이하 JIFF)의 올해 개막식 MC로 선정된 배우 김신록과 서현우가 무대에 올랐다. 사진은 영화배우 송지호 등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개막식MC 김신록·서현우  
 개막작은 '콘티넨탈 25'  
 전세계 57개국 224편 상영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정준호)가 지난달 30일 개막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김신록, 서현우의 진행 아래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는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부터 내달 9일

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전세계 57개국 224편(해외 126편·국내 98편)의 영화가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시 일대에서 상영된다.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는 올해의 프로그래머 이정현을 비롯해 가치봄 엠베서더 김보라와 특별전을 개최하는 배창호 감독, 전주시네마프로젝트 '호루몽' 출연자 신숙옥, 시라토리 케이코, '만남의 집' 송지호, '레이오버 호텔' 안소희, 박소진, '캐리어를 끄는 소녀' 유다인, 문승아, '여름의 카메라' 김시아, 박민규, '삼희 : The Adventure of 3 Joys' 현

우석, '클리어' 이주영, '엄마와 곰 The Mother and the Bear' 김호정, '직사각형, 삼각형' 진선규, '빈 집의 연인들' 기주봉, '생명의 연인' 송선미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민성욱과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의 환영사로 개막식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 뒤에는 특별 공로상 시상과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과 개막공연으로 이어졌다. 올해 특별 공로상은 지난해 12월에 별세한 전주 출신 한국영화의 거장 송길한 시나리오 작가가 수상하며 대리 수상을 위해 유가족이 참석했다.

특별 공로상 수여와 우범기 조직위원장의 공식 개막 선언 후 한국경쟁부문 및 코리아시네마 부문에 초청된 배우 겸 가수 김푸름이 개막 공연을 장식했다. 이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단이 소개되며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배우 이정현과 개막작 및 출연 배우들도 소개되는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콘티넨탈 25'가 상영됐다. 이는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감독 라두 주테의 신작으로 모든 장면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돼 화제를 모았다. 라두 주테 감독은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각본상 수상자로 유럽 현대 영화의 선두 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감독이다.

/최성민 기자

##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못해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 환송

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받아야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서 고 김문기씨와 골프회동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모른다고 발언했지만 해외출장 중 사교적 골프교류는 사실이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일반 선

거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더민주 중앙선거대책위 출범

D-32 6.3 대선  
 윤여준 등 8인 총괄선대위원장  
 정동영·한준호 등 15인  
 공동선대위원장 명단 올라



정동영 의원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당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원내 대책회의는 선대 본부장 회의로 열기로 했다.

선거의 핵심인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박찬대 원내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선임됐으며 박찬대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송순호 최고위원 ▲홍성국

최고위원 등 7인의 최고위원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원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단에 올랐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맡아 사실상 공동선대위원장을 이끌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실장에는 이춘석 의원, 비서실장에는 이해식 의원, 비서부실장 1수행 김태선 의원, 2수행 김용만 의원, 정무1실장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에 박성준 의원이 각각 임명됐고,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는 배우자 실장은 정을호·백승아 의원과 임선숙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고영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김두관 전 의원이 지방분권 혁신위원을, 박용진 전 의원이 사람사는 세상 국민통합위원회를 담당한다.

/서울=김영목 기자

## 전북, 유망 스타트업 IR 투자 연계 나선다

'전북 벤처투자 SCALE-UP'  
 도내의 유망 벤처기업 모집  
 도 창업생태계 본격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컨소시엄 소속 25개 투자사와 함께 진행된다.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행사는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및 유관기관 간 IR, 네트워킹 등의 협업으로 도내의 유망벤처기업 발굴·투자 연계 및 양질의 투자사의 펀드 참여 유도를 통해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성공적 운영 및 도내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기간) '25. 3 ~ 12월, (사업비) 150백만원(도비(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대상) 도내 벤처기업

및 투자사, 유관기관·기업 등, (사업규모) 60개사(회차당 유망스타트업 10개사 IR진행), (사업내용) 道 벤처투자 컨소시엄 및 도내의 우수기관·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투자유치, 정책홍보, 네트워킹 등 행사 진행(6회)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도내 창업·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4년 기준 누적 8,183억원 결성되어 결성목표인 1조 펀드 조성에 바짝 다가섰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도내 기업 밸류업 △초기 창업 생태계 구축 △도의 유망기업 유치 등 개별 컨소시엄 3개 라운드에 참여할 30여개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발굴·벤처투자자와 연계 계획이다. 또 하반기 IR라운드 3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게는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소속 25개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IR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 연계와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다음호는 5월 8일자로 발행 됩니다

126년 역사의 군산항,  
 새만금신항 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비안도  
 두리도  
 새만금신항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 전북도,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축산농가 선정

## 지정농가지원사업확대 등 깨끗한 축산농장대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 친환경 축산업 확산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나선다.

도는 이를 통해 '약취 저감·가축 질병 예방' 등의 축산물 신뢰도와 생산성을 높이라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사 내·외부 관리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등의 필수요건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받은 농장이다.

지정 필수요건에는 '차량진입 차단장치 설치, 울타리 설치, 소독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 축사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유지, 기록·관리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 대상 축종은 '한우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지정농가 대상 지원사업 확대(지정농가 한정사업 운영, 지원단가 상향,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신규 희망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판플릿 제작 및 생산자 단체·계열업체 방문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4개 사업 지원대상이 된다.

또 '산란계 칼슘첨가제'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는 일반 농가보다 높은 단가 상향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 지정 요건 충족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맞춤형 지원·지정 절차는 해당 시군에 접수하고, 축산환경관리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지정한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 기준 전국 총 7,217호 중 약 17% 규모의 1,223호의 깨끗한 축산농가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 친환경 축산업 확산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에 나선다. <사진=전북자치도>

깨끗한 축산농가 전북 현황은 '정읍시(185호), 남원시(170호), 김제시(158호), 부안군(135호), 익산시(132호)' 등이다.

전북도는 올해는 1,350호(누계) 지정 목표를 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무엇보다

다도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청결 관리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농가와 생산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불법어업 합동단속

## 무허가어선 등 불법조업 등 어업질서 위반 단속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확보 위한 불법어업 대상으로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해경' 등과 합동으로 육상·해상 불법어업 관련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단속은 5월 한달여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전북도의 단속 예고는 불철 수산물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고창군·부안군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에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

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을 투입시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대상에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어선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채종 위반 등 어업질서 위반 행위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서재희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불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이동진 "특정 인사·정당·지역 아닌 통합 후보가 대통령 돼야"

## 지난 30일 제21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전북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출신인 이동진 희망찬동행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달 30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출마 배경으로 특정 인사나 정당, 지역이 아닌 통합과 성장을 주도할 인물이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 일상 변화 체감을 강조하며 세가지 국가전략 중심 미래 대한민국 비전을 언급했다.

첫째로 창의 성장형 경제 구조를 강조하며 공약했다.

창의적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초기창업 기술개발을 돕는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K-콘텐츠 산업 세계시장 중심에서 서겠다 말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성장을 거론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색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에너지저장기술과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에너지 자립 시스템 추진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반도체 배터리 우주항공 AI 바이오 등 6대 기술전략 분야 국가 R&D 투자 집중하며 현재 국가 과학기술에 대해 미래대한민국 강력한 자산이라며, 과학기술 보유국가를 이루겠다고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이동진

(65년생 60세) 후보는 희망찬동행포럼 상임대표이며 완주군 삼례출신으로 전주영생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했다.

주요 경력은 전북대 법무대학원 기업법 전공, 전)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완주군 민선 6기 인수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부특보, 완주 상생 통합협회 이사장, 미 KSU 대학교 한국분교 전략 대학원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태 기자

### 안호영 의원-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 정책협력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지도사 권익 보호 논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조윤희 협회장)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갖고 산업안전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조윤희 협회장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의 협회 및 지도사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 안전 점검, 교육,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

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지도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전문성 강화 과제에 공동 발굴 및 추진 △실행계획 수립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 이행 추진

안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협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기능장연합회 등 다양한 직능단체들과도 정책협약을 체결기로 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윤준병 의원,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 선임

## "대선승리·정권교체 진짜 대한민국 건설 앞장설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로 인해 짓밟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목표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선거에 돌입했다.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임명된 윤준병 의원은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 역할을 비롯한 36년간의 공직 경력을 토대로 한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찍이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와 예결위 및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윤준병 의원

140건이 넘는 민생법안·정책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탁월한 민생과 경제정책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및 정책 활동에 한층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위한 농정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대선공약에 포함하고, 대선 이후 창출될 민주정권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갈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돼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수칙

**운전하기 전 음주는 절대 금지**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

**졸음운전 절대 금지**

**안전속도 반드시 지키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킵시다"

# 전주시 '청춘★별채' 공급 청년 인기 실감

### 예비 입주자 50명 선정 12일부터 순차적 계약 529:1 경쟁 내년 59호 공급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주 청년만원주택인 '청춘★별채'에 입주할 예비 입주자 5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는 총 1322명의 청년이 지원해 52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종 선정된 예비입주자 50명은 △우선 공급 대상자 1명 △기초생활수급자 42명 △한부모 가구 6명 △차상위 계층 1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거주자 35명과 타지역 거주자 15명으로 나타나, 전주형 청년주택모델이 지역 청년뿐 아니라 외부 청년들까지도 끌어들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는 이날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했으며, 이어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 주택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방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공급 물량은 총 23호로, 이중 공동거주형(1호)의 경우 3명이 거주할 수 있어 총 25명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중 순번 25번까지는 우선 입주 절차가 진행되며, 잔여 순번자의 경우 △계약 포기 △중도해지 △기존 입주자 퇴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추가 공급 물량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높은 수요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23호 신규 공급에 이어, 향후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공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예비 입주자에게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변경 계약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업 대상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올해 처음 도입된 '청춘★별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가 청년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주시>

채'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춘★별채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역 활력 제고와 청년 인구 유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내년에는 59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해 더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재근 기자



## 전주 동물원 어린이날 무료 개방

###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주차장도 무료 개방키로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동물원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료 개방된다.

또한 어린이날 당일 전주동물원과 드림랜드가 평소보다 한 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문을 열고 부설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히 당일 동물원과 드림랜드 모두 평소보다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다.

또한 입장객의 편의를 위해 동물원 내 부설주차장(828면)을 어린이날 하루 동안 전면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여기에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인파가 전주동물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원 누리집에 동물원 주변 교통흐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메뉴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날 당일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0여 명의 운영 인력을 투입해 관람객 안전관리와 시설 환경정비, 비상·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태 전주동물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동반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연탄가구 주거복지 지원

### 총 27개 단체 동참 탄소난방·태양광 등 제공

전북자치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주민 건강권·주거 안전권 확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재생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연탄 난방 사용 60가구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2025년 저탄소 주택난방 플랫폼' (이하 플랫폼) 운영을 위한 단체별 역할 구성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1차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을 총괄하고, △탄소난방·태양광·집수리 기업 △에너지·주택관리 전문기관 △지역 대학교 △재능나눔 봉사단체 △ESG 경영 실천 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주공업고등학교도 동참키로 하면서 총 27개 기관·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됐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1차 운영회의에 이어 앞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협력해 관내 에너지 취약 가구에 △탄소난방 전환 △태양광 설비설치 △단열 집수리 △전기 설비점검교체 △소득측 방역 및 안전 점검 △물품 지원 등 다양하고 촘촘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참여기관들은 대부분 고령 가구인 연탄 사용 가구의 주거환경 위험성과 불편을 해소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주택 저탄소 실천을 위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현장실사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플랫폼 참여



전북자치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전주시>

기관들과 함께 연탄사용 60가구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연탄 사용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온실가스 저

## 전주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영어 인재 모집

### 12명 선발단기 해외연수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4기 (2025-27)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환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기 위주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학집중 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5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2주 과정의 활동 보고로 진행되는 해외 연수 국가는 미국이다.

선발인원은 12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1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이다. 성적은 직전 학기 B+ 이상이어야 하며, 선발될 경우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2025년도 1학기를 휴학해야 한다.

선발심사기준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학업성적 30점과 어학자격증 20점, 생활정도 20점을 기본으로,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2차 면접 심사 30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장학생이 선발된다.

접수 방법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재근 기자

#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함께장터 프로젝트 동참

### 장애인 복지시설에 농산물 꾸러미 550세트 기탁

농협중앙회 산하 공익법인인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전주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후원했다.

전주시와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병철 NH농협 전북본부장, 하양진 NH농협은행 전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2750만 원 상당의 우리 농산물 꾸러미 550세트 후원을 약속하는 기부전담식을 가졌다.

이날 기부된 농산물 꾸러미는 쌀과 감자, 고구마, 당근, 양파, 대파, 마늘 등 계절에 맞는 국산 신선 농산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 '함께장터' 사업과 연계해 전주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함께장터' 프로젝트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노동자 지원을 위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동시에 살리는 착한 소비 프로젝트로, 기부와 연계된 소비 구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담식은 신용카드사회공헌



재단이 후원하고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농촌사랑 농산물 꾸러미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취약계층을 연결하는 나눔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기부가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착한 소비 프로젝트인 '함께장터'와 연계해 소비와 기부, 생산과 복지가 연결되는 지역 순환형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박병철 NH농협 전북본부 노동조합 위

##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소속 10개 단체 민간보조금 교육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 소속 10개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이 강사로 나서 연합회 소속 단체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집행 세부 기준, 위반 사례 등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이해하기 어려운 법 절차와 규정 △보조금 집행 실무 및 위반 사례 등이다.

또한 이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관련 사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한층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방보조금 교육을 추진해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시설공단 '가정의 달' 이지콜 무료 운행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제 103회 '어린이날'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

지난달 30일 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오는 5일 '어린이'는 물론 전 연령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한다.

가정의 날인 오는 15일에도 교통약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이지콜'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지난해 총 1784건의 무료 운행 서비스를 제공했

다.

공단은 교통약자 셔틀버스인 어울림 버스 4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장차량 63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인차 택시 3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군산에 국가 핵심자원 공급망 거점 구축

### 조달청 비축기지 창고 준공 220억 투입 일반·특수 2개동 핵심광물 73일분 추가 비축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달 30일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준공식을 개최해 국가핵심자원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는 일반창고, 특수창고 2개 동이며, 총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일반창고 신축으로 연간 수입량 대비 알루미늄은 10일, 구리는 73일분 이상 추가 비축이 가능해져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준공식을 개최해 국가핵심자원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 <사진=조달청>

정수용 활성탄이 보관될 특수창고는, 탄 비축창고·나동강 활성탄 비축창고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 활성탄 함께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삼

각축을 구축하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준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광해공업공단 임직원, 제35보병사단장 및 지역 경제인협회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국가핵심자원의 비축 규모뿐만 아니라 비축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비축이 우리나라 공급망의 든든한 안전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벼 종자 소독은 온탕소독과 약제소독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전북농기원>

## 벼 종자 소독은 필수

### 농촌은 지금

벼 종자는 보급종이나 우량종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종자소독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종자소독에 서부터 못자리 관리 등 벼 재배 전 과정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급한 사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우량 종자와 영농자재 준비 그리고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벼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제공=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독→찬물담금→약제소독 순이다. 약제성분에 따라 물의 온도, 사용량, 희석배수, 소독시간을 준수해 소독해야 한다. 종자소독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종자소독에 서부터 못자리 관리 등 벼 재배 전 과정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급한 사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우량 종자와 영농자재 준비 그리고 종자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벼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제공=전북자치도 농업기술원>

#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새만금 새판짜기'

### 새만금도민회, 정책협약 체결 더민주전북혁신회의와 탄소중립·자연보존 공간으로

새만금도민회의(조준호·조규춘·오창환·고영조·김종주 공동대표)와 더민주전북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 김용만·강종상)는 지난달 30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30여 명의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시 해수유통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 거점 공간으로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이날 더민주전북혁신회의와 함께 지속가능한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도민회의는 7년 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수 유통 확대, 태양광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새만금 개발로 수질 문제를 해결, 갯벌과 수산업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로 새만금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제안해 왔다.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자연보존과 개발 공존 속에 새만금 사업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했다”면서 “더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달 30일 더민주전북혁신회의와 함께 지속가능한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새만금도민회의>

민주전북혁신회의가 매립 속도전의 경로의존주의에서 벗어나 새만금 조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만금 전환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에 대한 사전 학습과 토론회를 거쳐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김용만 공동상임대표는 “책임을 살리는 길은 해수유통이고 삭막한 새만금에 산업의 기운을 불어 넣는

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동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새판짜기 조감도에 5대 정책 사업을 부착하면서 대선 이후 새로운 국정과제 채택과 민관협력로 새만금의 주체적전환과 전부의 혁신을 이루자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기후 위기, 환경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많은 기업 유치, 녹색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5대 새만금 새판짜기 공약을 설명했다. 두 단체가 협약한 5대 정책사업은 △새만금 조력발전으로 상시 해수유통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새만금 이차전지산단 폐수처리장 설치 및 화학사고대비 체계 구축 △새만금 외해역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거버넌스(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정재근 기자



지난달 30일 '스쿨팜' 학교내 유희부지나 자투리 공간을 텃밭, 벼체험장으로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 재배를 통해 수확하는 체험 수업이 진행됐다. <사진=전북농협>

# 새만금산단, 유망 중소기업 350억 규모 투자 유치 협약

### (주)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제조시설 건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달 30일 (주)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주)한국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팽택공장(25년 6월 준공 예정)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에도 동일한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약 350억 원을 새만금에 투자하고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은 올해 하반기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 가동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30일 (주)한국신재생에너지와 '열분해유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새만금개발청>

## 전북농협 '도심 속 스쿨팜' 초등생 2천명 참여

### 전북농협 도농교류 특색 사업 도내 30개 초교 작물재배 체험

전북농협은 스쿨팜을 통해 "도심 속 꼬마농부가 되어 내가 키우는 작물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주 시 동중초등학교(학교장 주명자)에서 학생들이 직접 재배하고 관리할 작물을 키우는 과정을 거쳐 자연과 교감하며 농업·농촌 가치를 배우며 우리 농작물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스쿨팜' 학교내 유희부

지나 자투리 공간을 텃밭, 벼체험장으로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 재배를 통해 수확하는 체험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식(食)체험, 농생명 교육, 벼 수확' 등의 과정에서 색다른 경험과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모범적인 도농교류 사업이자 전북농협의 특색사업인 스쿨팜은 2013년을 시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개 시(전주·익산·군산)와 함께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도내 30개 초등학교 2,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 /김영태 기자

## 농촌진흥청,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계 개발

### 노동력 7배 절감 경제성 확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밭농업 아주심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울림식 휴림피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 파종·아주심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른 작업 공정보다 낮은 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자 국내 육묘산업과 연계한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아주심기 전용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흙울림식 휴림피복기를 개발했다.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는 연약한 육묘를 다치지 않게 육묘판에서 뽑아 심는 농기계다. 기어만 바꾸면 고추에서



배추로, 배추에서 고추로 작물 전환이 가능해 연중 작업기 활용 일수가 2~3배 늘어난다. 경제성도 뛰어나, 작무당 노동력은 6~7배 절감할 수 있다. 2024년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노동 강도가 높은 고추·배추 아주심기 기계화율은 거의 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관행대로는 10아르당 13시간 안팎이 소요되지만, 정식기로는 2시간만에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흙울림식 휴림피복기로는 이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신협, 2025년 어부바멘토링 협약 체결

### 올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신협 사회공헌활동

전주덕진신협(이사장 임문옥)·다함께돌봄센터(센터장 심선숙)와 '2025년 신협 어부바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신협 어부바멘토링은 전국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신협 임직원이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되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특히 신협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신협, 아동복지시설' 등이 10년째 공동 추진하고 있다. 협약식은 지난달 29일 전주덕진신협



전주덕진신협이 다함께돌봄센터와 '2025년 신협 어부바멘토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덕진신협>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임문옥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다함께돌봄센터 심선숙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주덕진신협은 예코시티 데시앙 8블럭 다함께돌봄센터와 2024년부터 협약

을 맺어 2년 연속으로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2025년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 습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전주덕진신협은 1972년 설립 후, 올해 창립 53주년을 맞아 비영리 금융기관이며, 본점을 비롯한 덕진지점, 팔복지점 3개 영업점을 운영중이다. 또 조합원의 문화생활 및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산악회 및 캘리그래피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행복한집 프로젝트,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 탄소중립 실천 '온 힘'

##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 1회용품사용 저감계획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쏟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을 위해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 개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저탄소 환경급식 실천학교 132개교, 영양·식생활교육 중점 학교 및 저탄소 환경급식 중점학교 15개교의 학교장과 영양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 등을 적극 안내했다.

향후에도 '백리식단 운영', 학생 대상 '저탄소채식요리 경연대회' 등의 특색사업을 추진해 학교 현장에서 저탄소 채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식급식을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로 실천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은 △청내 카페 이용 시 머그컵이나 텀블러 이용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업체

이용 △종이 없는 회의 문화 만들기 등이다.

학교에서는 자원순환 교육을 확대해 단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발적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실태 및 에너지 절감 이행 점검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행사나 회의 때 점 검표를 붙이고 자가 점검을 하게 된다. /최성민 기자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학급 중심으로 150개 학급, 40개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올해는 77개 학교, 50개 학급을 선정해 학교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운영 규모에 따라 400만~1200만 원까지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학급 단위에는 1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된다.

지원된 예산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탄소배출 감축 활동, 환경교육 교재·교구 구입, 전문가 초청 특강, 탄소중립 실천 대회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태전환 교육급식 설명회" 등 탄소중립 실천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 '함꽃체' 예술 공연 선보여

남성중학교서 첫 시작 올해 총 10개 학교 대상 공연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지난달 29일 남성중학교를 시작으로 교육활동 보호-함께 꽃피우는 교육공동체 '함꽃체' 예술 공연을 본격 시작했다.

이 공연은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립예술단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첫 행사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 교육활동 보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익산시립예술단 소속 무용단과 풍물단이 한 무대에 함께 오르는 첫 사례로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남성중학교 2학년 학생은 "공연을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감동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 우리 학교가 더 따뜻하고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총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함꽃체' 예술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건강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환 교육장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함꽃체' 예술공연이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기념음악회

5월 8일 '영화음악 콘서트'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기념해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특별 기획 공연인 '영화음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영화들의 대표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전주시민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실제 영상 없이도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 연출로, 음악과 상상력이 만나 깊이 있는 융복합 예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공연 1부에서는 △음악과 사랑이 어우러진 뮤지컬 영화의 고전 '사운드 오브 뮤직' △비극적인 사랑의 서사를 담은 '오페라의 유령' △긴장감 넘치는 첩보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모차르트의 선율이 돋보이는 서정적인 멜로 '엘베라 마디간'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감성적인 영화 '아웃 오

브 아프리카' 등 시대를 초월한 명작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존 윌리엄스의 '해리포터'와 '스타워즈', '쥬라기 공원' △엔니오 모리코네의 대표작 '미션' 등 영화사에 길이 남을 영화음악의 거장들이 남긴 명작들의 선율이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다양한 세대가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 '초록바위에서 만나는 동학과 서학'

전주역사박물관(관장 김선옥)은 5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초록바위에서 만나는 동학과 서학'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전주 미래유산 16호인 '근자산 초록바위'를 중심으로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닌 동학농민군과 천주교 순교자,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헌신한 서양 선교사를 소개하며, 전주의 역사와 사람을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는 주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안산전투와 집강소 설치 △1791년 신해박해 및 1801년 신유박해 등으로 순교한 천주교 신자 및 1893년 전주에 첫발을 내디딘 미국 선교사 △동학농민군과 천주교 순교자의 피가 스민 초록바위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김선옥 전주역사박물관장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초록바위에 담긴 아픔의 역사를 다시 마주하면서 경계를 허물



고 차이를 넘어 하나의 염원으로 향했던 동학과 서학이 만난 전주의 장소성, 나아가 우리의 선조가 목숨을 걸고 이어준 가치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도교육청, 신규교사 학생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신규 및 저경력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을 높인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연수'를 오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신규 및 저경력 교사(3년 이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오는 8일 전주를 시작으로 △5월 27일 군산·익산 권역 △5월 30일 남원·장수·임실·순창 권역 △6월 12일 완주·김제·무주·진안 권역 △6월 20일 정읍·부안·고창 권역으로 나뉘어 총 5회 운영한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학생생활지도 실제 적용 사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등이다. /최성민 기자

## 전주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서정옥 작가 강연

'그림 읽어주는 시간' 주제

전주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지난달 30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깊이 있는 예술 이야기를 듣는 '예술이 머무는 시간'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정옥 작가가 초청돼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그림 읽어주는 시간'을 주제로 미술사에 나오는 최고 그림과 예술가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를 공유했다. 또, 시민들과 함께 그림을 보며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재근 기자

대중들에게 미술관에 와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작품을 해석해 주는 '서정옥 미술토크'로 유명한 서정옥 작가는 서정옥 갤러리 대표와 아트 앤 콘텐츠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만의 도슨트, 오르세 미술관·루브르 박물관 △프리카칼로, 붓으로 전하는 위로 △그림 읽어주는 시간 등이 있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예술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깊이 있는 예술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

## 2025년 5.10(토)~11(일)

### 10:00~21:00

#### 장소 · 정음천 어린이축구장 일원



**박지현**



**알리**



**광윤성**



**하림**

주최 정음시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후원 정음농협 순정축협 전북특별자치도정음교육지원청

역압에서 피어난 불꽃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매트리스 관리 서비스 지원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단장 백지원)이 저소득 거동 불편 가구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총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트리스 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적인 매트리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매트리스 케어' 사업은 전문 관리 인력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매트리스 청소와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매트리스에 서식하며 천식,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와 집먼지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시민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단순히 청소와 소독에 그치지 않고, 매트리스가 심하게 노후된 가구에는 새 매트리스로 교체해주는 지원까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매트리스 케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 1인 가구 중장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5월은 익산 곳곳이 축제장

"온가족행복충전" 어린이날한마당가족캠프 등

익산시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풍성해진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 문화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오늘은 내가 주인공! 신나는 어린이날 한마당

우선 제103회 어린이날인 오는 5월 5일, 익산 시내 곳곳에서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새삼동청소년회가 주관하는 '제39회 숲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축하공연과 아동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전통 민속놀이, 직업 체험, 디지털 체험, 반려동물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연매나눔공동체가 주관하는 '제30회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된다. 모범어린이 시상식과 춤 공연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



1박 2일 가족 행복캠프

<사진=익산시>

다. △ 다자녀 가족을 위한 1박 2일

시는 또 가정의달을 맞아 다자녀 가정을 위한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가족 행복캠프'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일대에서 진행한다. 행사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 책과 함께하는 5월,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가득

시립도서관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현도서관을 비롯한 7개 도서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대출권수 두 배 확대(5권→10권)'가 5월 3일 하루 동안 진행

된다.

영등도서관에서는 '나는 컵이 아니야'를 쓴 그림책 작가 '나다울'과의 만남이 이뤄진다. 부송도서관에서는 '마술사의 일기장'을 주제로 마술 공연이 열리며, 새로 문을 연 수오산그림책숲도서관과 모인여행숲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작가와 여행 작가 초청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정책과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는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석지 채용신 테마전

정읍 역사인물 재조명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역 대표 서화가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50~1941)의 작품 세계를 통해 정읍의 인물과 역사, 시대정신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테마전을 8월 3일까지 개최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선 말기 여진화사로 명성을 떨친 채용신의 눈을 통해 정읍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시의원, 유물 소장자·후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채용신이 1918년에 그린 '김도연 초상'의 기탁식이 함께 열려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조선 영조 대 임금부도사를 지낸 김도연(1684~1735)의 후손인 김준기 선생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 활용을 위해 귀중한 작품을 박물관에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테마전은 두 개의 전시실에서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1



김도연 초상

층 서화실에서는 무성서원의 제향 인물과 태인 의병 활동을 이끈 면암 최익현 관련 작품이 중심을 이룬다. 2층 기획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면 채용신과 정읍의 깊은 인연을 엿볼 수 있다. 1910년대부터 정읍과 관계를 맺었던 선비들의 초상이 소개되는데, 정읍 영주정사의 설립자인 '박만환 초상'을 시작으로 안재호, 김태흠, 이세현, 김도연, 김환규, 정치환, 김경구 등의 초상이 공개된다.

전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군산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64세(1961~2005년생) 중 흡수년도 출생자이다. 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 측정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진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며, 각각 2년 주기로 시행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 중 흡수년도 출생자이다. 특히 검진 항목에 △인지 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낙상 검사 등을 추가하여 노년기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검진 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5월 축제 열기 '후끈'

노래자랑·야시장·구매금 환급

정읍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샘고을시장에서 흥겨운 축제의 장을 펼친다.

JTV 인기 프로그램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먹거리와 공연이 있는 야시장,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 행사까지 연이어 개최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 특설무대에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열린다.

전통시장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이 행

사는 샘고을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북상인연합회, 샘고을시장 상인회, JTV전주방송이 함께 주관한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시민 노래자랑, 초청 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노래자랑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샘고을시장 상인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튿날인 8일 오후 5시에는 샘고을시장 다목적광장에서 '어버이날 감사 샘고을 야시장'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은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가 진행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샘고을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기간 중 발급받은 영수증(카드 결제 시 카드 매출 영수증, 현금 결제 시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인회 1층 고객센터(오전 8시~오후 4시)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7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벼 육묘 알선창구 운영

영농철 앞두고 2개월간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본격 영농철을 앞둔 5월부터 이앙 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2개월간 육묘 알선창구를 운영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육묘 알선창구'는 육묘가 남는 농가와 부족한 농가 현장을 연결해 육묘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는 한편, 성공

영농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산시는 전체 농지에서 벼생산 비율이 높은 만큼 육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계속되는 이상 기후와 병해충 발생 문제로 인해 육묘 난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육묘 알선창구를 통해 작년도 7천 상자 이상의 육묘를 알선하여 40ha가량의 면적에 차질 없이 육묘를 마칠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육묘가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작기 이앙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육묘가 과다할 경우 폐기처분 해야 하지만, 육묘 알선창구를 운영해 농가 경영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농업인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육묘뿐 아니라 영농기술까지 도움을 받는 장점도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 민간기록 공모전

이리시·익산군 기록물 수집

익산시가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록을 찾는다.

익산시는 1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제5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익산군이 이리양을 만났을 때'로, 통합 시기인 1995년 이전 익산군과 이리시 주민들의 삶·문화·사회상을 보여주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한다.

공모는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익산군 또는 이리시 자료임을 알 수 있는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등의 기록물이다. 특히 익산군이나 이리시가 표기된 1995년 자료

는 특별히 우대된다.

아울러 공통주제로 △마을이나 동네의 역사 △익산과 관련된 정책·행사 기록 △일상·풍속·문화생활 등 익산과 관련한 전승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면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s35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지원과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8~9월 중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대상 1

명(100만 원) △최우수상 3명(각 50만 원) △우수상 7명(각 30만 원) △장려상 34명(각 10만 원) 등 총 4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은 도록,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전시회,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익산의 역사 연구와 교육,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이리·익산 통합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익산시민의 소중한 역사와 추억을 후대에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익산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기록 발굴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1인 가구·여성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안심 홈세트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군산시가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과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립감과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2025년 총 1,73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130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5종이며, 가구당 최대 3종까지 선택 지

원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또한, 시는 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생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10대를 공공시설과 청소년시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 설치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도서관 △설립도서관 △늘푸른도서관 △금강도서관 △근대역사박물관 △예술의전당 △수송동 및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총 10개소로 여성과 청소년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 대비 1.78% 상승

정읍시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총 2만 5202호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1.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가격 결정이 각종 조세 부과와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확인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의 특별한 초대, '느린 편지'와 찾아온 서동축제

익산시가 여행객들에게 1년 전의 설렘과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편지를 발송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 '전년사랑열차 시즌2' 참가자들이 작성한 '느리게 가는 편지' 200여 통을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느리게 가는 편지'는 관광열차를 타고 익산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여행의 감성과 추억을 엮어 담아 작성하면, 1년 뒤 다시 받아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편지 발송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5 익산서동축제'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처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이어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올해도 서동축제와 연계한 '전년사랑열차'를 5월 3일 운영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시, 청년과 함께 창작마을 조성

## 청년마을 만들기 선정 미디어문화예술관광 결합 3개 분야 8개 프로그램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청년단체를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쌀도시의 청년연구소(대표 나진아)는 '오고가 농다 청년마을(청년 농업문화콘텐츠 창작마을)' 프로젝트를 제안해 선정됐다. 특히, 신농동 일원을 거점으로 △농업+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콘텐츠로 농다' △농업+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로 농다' △농업+관광체험 프로그램 '기억으로 농다' 등 3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농업을 주제로 한 크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리에이터 캠프,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보 마을투어, 로컬 푸드 체험 등이 포함돼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오고가 농다 청년마을'은 1억원을 지원받아 농업의 유산을 청년의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미디어·문화예술·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과 함께 농업도시 김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산무사용 소비자맞춤 김치 개발 착수

식품산업, 3중 연구 추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무를 주원료로 한 소비자 맞춤형 김치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고창산 무를 활용해 과학적인 발효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설계를 통해 시장성을 갖춘 고창을 대표하는 무김치 3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소비자의 입맛이 다양해지고 있어 배추김치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깍두기, 동치미 등 별미 김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김치시장에서 제품의 다양화와 세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김치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고창군이 조성 중인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와 연계해 김치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고창산 무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가공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김치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생기 연구원은 "고창산 무를 활용한 김치 제품을 개발을 통해 김치 산업을 고창의 농업, 관광 등이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미혼 청년 만남의 장 25~39세 남녀 각15명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미혼 청년 만남 행사 '김제에서 나의 20시간 여행' 참가자를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김제에서 나의 20시간 여행'은 바쁜 일상 속에서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내달 13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후 3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김제시 관내에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커플 미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며, 참가 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김제시 소재 또는 연구가 있는 직장(자영업, 프리랜서 포함)에 재직 중인 25세~39세 사이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이메일(serim0761@korea.kr)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년세대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양식장 형망선 야간 조업 허용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부안군은 새꼬막 양식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령안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4년 하반기 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욱 주무관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시한 '양식장 관리선 사용기준 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이 최우선상을 수상하며 추진됐다. 군은 효율적인 관리선 운영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리해 왔으나 기

존 조례에서는 양식장 형망선의 일몰 이후 사용이 제한돼 새꼬막 양식 어업인들이 수확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새꼬막 양식장의 조수 간만의 차를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새꼬막 수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업인들의 오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 136개 기관사회단체, 국가유산 돌봄 앞장

## "민관 협력 국가유산 보존 활용 우수사례 만들 것"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은 고창군 기관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함께 하는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소중한 국가유산을 정비하고 알리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군에서는 지난 3월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해 모집한 결과 103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실관과소와 읍면까지 총

136개 단체가 봉사단 활동에 함께하게 됐다. 내고장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활동은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정화활동(청소, 배수로 낙엽제거, 잡초 제거, 화재감시, 모니터링 등)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국가유산 홍보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고창군 전역의 국가유산을 상시적으로 돌보며, 군민들이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과 국가유산 보호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각 단체별 위촉장 수여, 대표자 선서와 함께 고창 인구 5만

자기가 나 부터 함께를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돌봄사업 평가위원 이동범 강사의 '국가유산 돌봄 봉사단 활동 방법'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유산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생생한 역사이고, 인류문화의 자산이다"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국가유산을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의의회, 22개 사업 현장 방문 의정 활동

## 제361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의회(의장 박병래)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의회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22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방문 과정에서 의원들은 △부안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의 테마와 상징성 미흡 △해탈마루 보행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상 위험요소 △줄포 노을빛정원 파크골프장과 구진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의 전반적인 부실 문제 △위도 게이트볼장의 다양한 체육시설로의 활용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



부안군의의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부안군의의회>

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부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해 8

건을 원안 가결 처리하고, '부안군 출항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송 본격 운영

월~금·균주별 최대 100리터 유용미생물은 토양 유기물 분해 촉진, 병해충 억제, 항생물질 생성, 수확량 증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군 미생물배양장은 지난해 지역농가에 950톤을 공급했고, 올해는 전국 최초 유용 미생물 읍·면 순회 서비스 시행으로 500톤 가량이 늘어난 1430톤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배송 서비스는 소규모 농가도 손쉽게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농업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고창군에서 매년 약 3천여 농·축·어업 농가가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이용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이 유용미생물 운송 전용차량으로 배송 서비스 본격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용미생물 배송 서비스는 읍·면 단위 대상으로 월~금 주5회 배송될 예정이며, 균주별 최대 100리터까지 미생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배송 서비스는 소규모 농가도 손쉽게 유용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농업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실용성을 더욱 높였다. 고창군에서 매년 약 3천여 농·축·어업 농가가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이용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희옥 김제부시장, 새만금 수변도시 현장행정

##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 관할결정 후속조치

김희옥 부시장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김제 관할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만금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이날 김 부시장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만금전략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과장 등 주요 부서장들과 새만금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25.2.21.) 및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5.4.18.), 행정안전부장관의 농생명명지 및 부수제(25.4.21.) 김제 관할 결정에 따라 체계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새만금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새만금 누리생태공원 △새만금 2호 방조제 △자연쉼터 △바라봄터 △소라쉼터 △너울쉼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방문해 관광안내도 설치, 버스노선 및 신규 승강장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했다. 김 부시장은 "새만금 사업은 김제 마

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원"이라며 "김제 관할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의 첫 도시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인구 3.9만명, 6.6km<sup>2</sup> 규모의 미래 첨단 복합도시로서, 새만금에 인구·산업을 유입시키고 민간 산업 참여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첫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주민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부안군은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달 24일 2차로 30명이 입국했다. 이는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을 선발해 지난 3월 1차로 19명, 이번에 2차로 30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2월 군과 농협 관계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기관과 협력해 면접 등을 시행해 성실성과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들로 선발했다. 본격적인 현장 투입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남부안농협에서 무단기 탈 예방과 근로 규정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으며 계절근로자로써 적을 과정을 거쳐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베트남 계절근로자와의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멘토·동네작가 지역문화·영농생활 '생생' 전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달 29일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 2명과 동네작가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신규 귀농귀촌인들의 주요 애로 사항인 영농분야 컨설팅과 농촌 빈집 및 농지 소개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부안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동네작가 5명은 부안의 일상을 담아 마을과 지역문화, 영농 현장, 귀농귀촌 생활, 관광지 등을 직접 경험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할을 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그린대로),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동네작가 개인 블로그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동네작가는 그동안의 SNS 활동 이력,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홍보 계획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정혜란 소장은 "이번 귀농귀촌 멘토 컨설턴트와 동네작가 활동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지역 생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문화원 예비예술인재육성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성료

고창문화원(이현곤 원장)이 지난달 29일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습지 광장에서 '고창의 문화, 미래를'을 주제로 제48회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고창 청소년 문화예술을 진지 다. 고창지역 청소년들과 각 학교 교사, 고창문화원 회원과 문화가족 800여 명이 참여했다. 동백연은 청소년들에게 충효 사상과 애향심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자연 생태환경 보호 등의 정신을 복돋아 주고 예비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1977년부터 계속돼 오고 있다. 행사에 앞서 청소년들의 재량을 마음껏 펼치고 무탈한 동백연을 기원하는 동백제를 시작으로 민속놀이 경연, 예술경연(백일장, 미술, 민담설화, 타악), 문화체험, 풍선 이벤트, 퀴즈 풀이 등 전통놀이부터 경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현곤 고창문화원장은 "선운산을 비롯해 곳곳이 아름답고 귀한 보물로 가득한 고창에서 청소년들은 큰 꿈을 키우고 문화 가족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문화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만경강 프로젝트' 본궤도

## 봉동 씨름공원 조성 발주 레포츠공원 등 순차 추진 완주형 수변복합도시 조성

완주군이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군은 우선순위 사업지로 봉동 씨름공원과 천변레포츠공원을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실시설계 및 전북지방환경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봉동 씨름공원 조성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봉동 씨름공원은 종합계획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봉동읍 체육회와 당산제 운영 관계자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이에 군은 읍민의 날 행사에 활용 가능한 씨름장과 다목적 광장, 관람스탠드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까지 함께 마련해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5월부서는 봉동 천변레포츠공원 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후속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진



완주군이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사진은 봉동 천변레포츠공원 조감도 <사진=완주군>

행을 위해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환경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업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과 전문적인 자문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만경강 일대를 문화·관광·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개발을 넘어 문화·관광·경제 등 완주

군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대규모 종합계획이다.

군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의 중심 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 등 착실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대상 지역은 국가하천인 만경강 완주 구간 내 삼례, 봉동, 용진, 고산 등 총 4개 권역으로, 군은 오는 2032년까지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19개 사업과 42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근 기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을 방문해 주요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완주군>

## 전북지방환경청장, 완주 재해복구 점검

### 김호은 청장, 성북천 등 찾아 재해복구상황-안전관리 확인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을 방문해 성북천 등 주요 재해복구사업장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완주군은 국비와 도비, 군

비 등 총 1,128억 원을 투입해 총 217건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132건은 이미 완료돼 전체 복구율은 61%에 달한다.

군은 지속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하부 세굴, 구조물 손상 및 붕괴 위험 등 우기철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 완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4가족 선발...사후 관리 강화

완주군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4가족을 선발했다.

지난달 30일 완주군은 다문화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상황, 고향 방문의 필요성, 사업 참여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27가족이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4가족을 선발했다. 선정된 가족은 사업 지원을 받아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고향 방문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 가족에게는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보험료 등 최대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완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사업은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향나들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 고산도서관 평생교육 지원 선정 7월말 현대풍속화 제작 특강 운영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주최하는 '202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025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3개 분야, 보편적 평생교육 3개분야 중 총 16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고산도서관은 지리적 취약계층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고산도서관은 오는 7월 말부터 지역작가와 함께 한국화 중 풍속화 기법을 활용한 동양예술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김홍도의 풍속화 화풍을 활용해 5일장, 축제, 학교, 마을회관 등 현대완주군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현대풍속화를 제작할 예정이다.

결과물로 나온 작품들은 완주군 학교, 공공기관, 단체들이 작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파일로 제작해 배포하고, 염서를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평생교육 거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 기자

# 남원시, 춘향제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 광한루원 일원 홍보 부스 전시·체험형 콘텐츠 운영

남원시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리는 제95회 춘향제 기간 동안 경찰특화도시 조성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남원시는 지난해 경찰청이 공모한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 과정에서 3개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최종 부지 선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시민인터뷰 영상 촬영과 서명운동을 통해 남원시의

강점과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뛰어난 치안 역사성과 경찰 정신 교육에 적합한 상징성을 지닌 남원시는 중앙경찰학교 추가 설립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 정부 재정운영 기조에 부합한다.

이러한 남원시 유치 당위성 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주요 홍보 프로그램으로는 사랑의광장 일원에 경찰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비행선 운행과 시민참여형 프로

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원 체험버스를 활용한 모의주행 운전능력 평가(인공지능능력평가), 이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싸이카와 순찰차를 활용한 어린이 포도존도 설치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춘향제 길놀이 퍼레이드에는 몽골 제60년 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메인 공연과 함께 행렬 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경찰특화도시 남원' 등의 구호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올해 첫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개최

### 산업 발전방안 논의의 장 연구인력 총원 등 심의

남원시는 지난달 28일 '2025년 제1회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민선식)'를 개최하고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 및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 신규채용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는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남원시에 추진 중인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및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VISION)선포식에 대한 내용보고를 통해 남원시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추진계획과 발전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식약처 인증 시험검사기관 지정필수 인력 및 연구원 직원 신규채용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민선식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남원시 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남원시 바이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력

## 3개 신규 대회 유치 확정 지역소상공인 실질적 도움

순창군이 올해도 다양한 신규 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순창의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개최될 신규 대회는 '2025 순창 키즈 테니스 페스티벌'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순창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리며, 12세 이하 초등학교 선수들이 참

가하는 개인 단식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날 기간에 맞춰 개최되는 만큼, 테니스 관련 OX퀴즈, 서브 챌린지, 가위바위보 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500여 명의 선수와 학부모가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숙박, 음식,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유등면에 새롭게 조성될 유등 삼진강 파크골프장의 정식 개장을 기념해 전국 규모의 동호인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친목과 실력 향상은 물론, 신규 스포츠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월에는 소프트테니스 종목 중 가장 권위 있는 '2025 대통령기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5년 만에 순창에서 열린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순창을 찾는 대형 행사로, 순창군 스포츠마케팅 전략의 핵심 대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군은 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축구,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신규 대회를 추가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순창군, 성차별 없는 행정·사업 펼친다

### 성별영향평가 대면 컨설팅 차별요소 사전 검토 개선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청년문화센터에서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별 대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사업, 안전사업, 청년 및 농업 관련 사업 등 총 20건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위해 전북성별영향평가

센터 소속 정형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 사업 담당자들과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군은 이번 대면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 개선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순창=박지현 기자

# 다음달부터 남원의료원 야간 소아진료 개시

## '달빛어린이병원' 6월 2일 평일 밤11시까지 진료 혜택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료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오는 6월 2일부터 남원의료원에서 평일 야간 소아과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지정은 남원시보건소가 2주 이상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해당 기간 내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했으며

도에 심사 결과 보고 및 지정 선정 요령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사업으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필수의료체제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료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기관으로 선정됐으며, 6월 2일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제공한다.

남원의료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 향후 전일(주간+휴일) 진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야간에 소아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기관의 부재로 인해 타지역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 이용에 의존해 왔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남원은 물론 임실·순창·장수 등 인근 지리산권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300인 남원시민 노래, 춘향제 열고 닫는다

### 남원시민합창단 개·폐막 무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주제로 펼쳐지는 제95회 춘향제에서 '300인의 남원시민합창단'은 개막식과 폐막식 주제공연에 참여한다.

'300인의 남원시민합창단'은 춘향가의 고장 남원에서 펼쳐지는 7일간의 소리 여정에 우리의 소리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하며, 1일 개막식과 6일 폐막식 주제공연에 통해 합창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합창 공연은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김중희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지휘 아래 아름다운 나라와 소리



군 고영열과 함께 '남원 아리랑(장작곡)'을 시민합창단이 노래한다. 남원 아리랑은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오병희 선생님께 위촉해 남원만의 새로운 아리랑을 흥겹고 신명나게 표현했다.

폐막공연에서는 아름다운 강산(편곡)으로 시민과 함께 노래하며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공식 전년비 소폭 상승 '안정 유지'

순창군이 지난달 30일 총 127,055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했다.

올해 순창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57% 상승했다. 이는 연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0.64% 상승한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공시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하고, 감정평가사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장수군 제17회 어린이날 한마당 놀이·문화 등 즐길거리 풍성

장수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의암공원 일원(우천 시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제17회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대표 서경원)'가 주최하고 장수군 등이 후원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개회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총 39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수학 놀이터, 도어벨 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등 놀이·문화·환경·정서 분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간식 부스도 마련돼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그릇, 물병, 수저, 가방 등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행사장에는 자원봉사자 230여 명과 경찰, 소방, 의료 인력이 배치돼 안전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한누리전당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한누리시네마 이용 시 팝콘세트를 2,000원 할인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된다.

최훈식 군수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초등학생 대상

#### '호국 보훈의 달' 포스터 공모

진안군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초등학생들의 보훈 의식 함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1일부터 오는 23일까지로 참가 대상은 진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다. 완성된 작품은 진안군 사회복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향후 군 주관 행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는 관내 보훈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아, 사실성과 시사성, 작품성, 홍보 가치 등을 기준으로 총 4점의 우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진안군수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최우수상 10만 원, 우수상 7만 원, 장려상 각 5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3억5천만원 투입

#### 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공급에 나섰다. 군은 올해 벼 재배 면적 1,800ha를 대상으로 총 3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벼 재배 전 논가에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벼 육묘 단계에서 약제를 단 한 번만 처리하면 초기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농가의 노동력과 방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전방제 지원책이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교환권을 배부하고 있으며, 농가는 오는 31일까지 약제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공급되는 약제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한 형태로, 벼 파종 시 뿌리거나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면 된다.

약효는 90~100일간 지속돼 추가 약제 살포 횟수를 대폭 줄여주며, 벼물마름·벼멸구·도열병·흰잎마름병·잎집무늬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의 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노급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활용한 초기 방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처리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천만관광 달성 집중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인상 지급 등 56월 방문시 추가 지원도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 천만관광 달성과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한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로, 관내 관광지 방문, 관내 음식점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버스 한 대당 35만원으로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실군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 천만관광 달성과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임실군>

또한, 기존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더불어 5월과 6월에는 '여행가는 달 연계 전북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매년 임실N치즈축제, 임실산타축제 시에는 50만원으로 인상에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숙박비를 할인 지원하고, 인플루언서 초청 캠퍼스와 도내 대학생 임

실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과 특별한 혜택으로 방문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한 만큼 임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천만관광 임실 실현을 위해 외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 치유의 숲' 웰니스관광지 신규 선정

## 자연·치유 테마부문 선정 자연 연계 시설물 이용 가능 치유지도사 보유 높이 평가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선정하는 10곳의 웰니스관광지 중 자연·치유 관광지 '장수 치유의 숲'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웰니스관광은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지원, 치유관광 프로그램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웰니스·의료관광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장수 치유의 숲'은 와룡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돼 있으며 청정자연과 연계되는 시설물 이용이 가능한 점과 싱잉볼 마스터, 아로마테라피 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치유지도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수 치유의 숲'은 2022년 1월 21일 개관해 치유센터 1동, 치유숲길(4.95km), 무장애 데크로드(0.4km) 등 50ha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치유센터는 자가진단실, 향기치유실, 건강치유실, 명상치유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출산을 저하 및 난임부부 증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며 "와룡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전북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현안 논의

장수군은 지난달 30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정책 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미래 성장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훈식 군수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현안사업은 △100마일 장수 시그니처 경관 조성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지원사업 △장수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5건이다.

전북연구원은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연구원 이남호 원장 등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남호 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업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의 정주여건 개선, 관광자원을 고도화하는 등 장수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다지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 인구감소 대응, 산악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등 다양한 과제와 기회를 함께 마주하고 있다"며 "군민과 공직자, 연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생 623명 선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은 2025학년도 장학생 623명을 선발하고 지난달 30일 장학금 5억 2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무주군민의 집에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 오광석 부이사장(무주군의회위원장), 이강 무주교육장을 비롯한 장학재단 대표와 학부모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지역 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139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 장학금,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53명에게는 1인당 50~60만 원의 특기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무주군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인 학생 431명에게도 1인당 1백만 원(학기당 1회)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 증서는 장학금별 대표 학생이 받았다.

무주고등학교 신정원 교사 등 지역

내 고등학교 교사 4명과 2024년 고액 기부자(5백만 원~1천만 원)에 이름을 올린 무주농협수확공진회, (유)덕유환경개발도 이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정유진 학생대학교 1학년은 "장학금을 받으니깐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장학금으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시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 성수면 고품질 '마이멜론' 본격 재배

## 매출 7억 달성 목표

진안군 성수면은 본격적인 고당도 고품질 멜론 재배가 시작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성수면의 멜론 재배 면적은 27개 농가에 하우수 6.7ha이다.

지난해부터 '마이멜론'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백운농협 성수지점 주관으로 한국 멜론 연구소에서 멜론 재배에 따른 기술 지도 및 이론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은 멜론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올하는 지난해에 비해 멜론 재배면적은 지난해 2ha에서 6.7ha로 대폭 확대됐으며, 신규로 7농가

가 멜론 재배에 참여한다.

이들은 멜론 생산 매출액 7억원 달성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성수면 '마이멜론'은 두 차례 나누어 재배하는데 4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있는 멜론은 추석 명절 전에 출하 예정이고, 8월에 식재 예정인 멜론은 추석 이후 출하될 계획으로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멜론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전병호 멜론 작목반장은 "멜론 작목반원들이 서로 정보교환과 소통을 통해 생육상태, 수분관리, 매론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유용하면서 맛있는 매론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임실군이 지난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과 동시에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561호이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은 주

택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군민 금연 실천 독려 '눈길'

무주군이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금연 실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으로 △금연 2행시 짓기 이벤트 'Write 금연, Right 건강' △금연 2행시 짓기 이벤트 'Write 금연, Right 건강' △금연 2행시 짓기 이벤트 'Write 금연, Right 건강' △금연 2행시 짓기 이벤트 'Write 금연, Right 건강'

'금연 2행시 짓기 이벤트'는 '금연'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금연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표현하는 행사다. '워크온 연세 금연시절 인증 걷기 챌린지'는 무주군 내 금연 구역에서 사진 인증을 하고 일 15만 보 걷기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무주군 커뮤니티 '걸어서 노담 속으로'에 가입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로원 보건행정과 이승하 과장은 "이번 행사가 금연



과 걷기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활 속에서 군민 건강을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진안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진안군은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소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이 가운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버리 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은 모두 채움 안내문이 사전에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신고 도움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택스·위택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 마한박물관  
'마한네 그릇가게' 특별전**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서동축제에 맞춰 특별전 '마한네 그릇가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금마 서동공원 내 마한박물관에서 오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마한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형태의 그릇 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서동축제 기간인 5월 4-6일 특별 체험으로 '발포세라믹을 활용한 마한 토기화분 만들기' 꾸러미를 매일 선착순 20명씩 무료로 증정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도동동 1일 1가구 풍년농장,  
취약계층 위해 계란 후원**

지난달 30일 전북 남원시 도동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풍년농장(대표 이성만)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나섰다.

풍년농장은 도동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일 1가구 소동행정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매일 신선한 계란 20편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된 계란은 저소득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받은 주민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옥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직접 농사지은 백미 기탁**

옥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옥사모)이 관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직접 농사지은 백미 40포를 기탁하였다.

이날 받은 백미는 관내 저소득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옥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송순용 옥사모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폐현수막 활용 서류가방 기부**

**알뜰맘재봉틀 봉사단 협력**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달 30일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서류가방 100개를 전주시 봉장단에 기부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탄소중립 실천 업사이클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회장 임소영)과 협력해 버려진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와 도시락 가방 등을 제작해 기부하며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은 도당산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각 기관이 기부한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재능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이날 재활용을 통해 재탄생한 서류가방 100개를 전주시 봉장단에 기부하게 됐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실내에서 사용한 현수막을 기증받아 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재활용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장수군 천천면 지사협,  
어린이날 맞이 학용품 쿠폰 전달**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이현원, 민간위원장 조규덕)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학생 30명을 대상에게 학용품 쿠폰 5만원을 지원했다.

'어린이날 맞이 학용품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진행된 '행복꾸러미 전달 행사'에 이은 두 번째 특화사업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익산서동축제 성공기원 후원금**

**"문화관광육성 지원에 최선"**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부장 진현욱)가 지난달 30일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에 '2025 익산서동축제' 후원금 7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재단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은 익산서동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진현욱 농협 익산시 지부장, 김세만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익산서동축제는 백제왕도 익산의 대표축제로 어린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운영되는 전복권 유일 역사인물 축제이다. 진현욱 지부장은 "문화유산도시 익산시를 대표하는 서동축제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상생 금융기관으로서 문화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신풍동 꿈꾸는 어린이집,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군산시 신풍동 '꿈꾸는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고사리손 사랑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를 방문한 주인공 원장과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모은 458,140원의 성금을 영남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7세 반 원생들이 재활용 우유팩으로 직접 저금통을 만들고 동전을 모아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전국, 원주군 화재피해 다문화가정 후원금**

(주)전국(대표 이재수)이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군 다문화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유희태 원주군수, 박환철 (주)전국 부사장을 비롯해 조록 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200만 원의 후원금은 지난 3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다문화가정 주택 신축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전국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12월에도 원주군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박환철 부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김명곤 기자



**부안 변산면 지사협, 어린이날 선물꾸러미 전달**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선환)는 지난달 29일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다문화 돌봄센터 2개소(변산다문화돌봄센터, 격포다문화돌봄센터)를 찾아 학용품, 간식 등 순수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어린이날 맞이 선물꾸러미 전달 사업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의 추억을 선사하고

자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아동들이 이용하는 센터에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곳곳을 살폈다.

양정우 변산면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익산시 영등2동 주민들,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나서**

익산시 영등2동 주민들이 설렘 가득한 봄을 맞아 지난달 30일 아름다운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영등2동 기관·단체 회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익산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인근 상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익산에(愛) 바른주소 갖기 캠페인'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홍보하며 지역 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익산=최준호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一事一言〉



전북 이전 대상 2차 공공기관 대선 공약에 넣자

김관순  
논설위원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시 한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바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중대한 어젠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했던 성과를 감안할 때, 그 연장선에서 추진될 2차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치라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2차 이전 논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이유로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지역 간 유치 경쟁의 과열, 수도권 반발 등의 요인이 주된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간이다. 인구절벽,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계에 다다르며, 지방의 경쟁력 회복과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다.

수도권 일극주의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과 인근 지역에 집중된 인프라와 자원은 지방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과 인구 유입의 동력을 제공하는 촉매제가 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 교

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

이미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혁신 도시들은 이러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부산은 산업은행 본사 이전 논의를 선도하며 지역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이 발표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북은 이 흐름에서 다소 뒤처진 모습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인구절벽,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위기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계에 다다르며, 지방의 경쟁력 회복과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왔다.

전북은 식품, 농업, 생명 산업 등에서 독보적인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러한 특화 산업에 맞는 공공기관의 유치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해당 산업 생태

계 전반의 고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농협중앙회나 한식진흥원 같은 기관의 유치는 전북의 정체성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을 이끄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전북도와 정치권, 지역 사회가 좀 더 공세적인 자세로 나섰다. 도민의 민의를 담은 명이 발표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전략을 재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의 전략이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수도권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바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옮긴다'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수도

권의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정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통합과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야 다양한 산업과 인재가 나오고, 위기에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이전은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기관의 기능 약화, 직원 이탈, 지역 정착 실패 같은 문제는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각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 노력이 공약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비전을 조율하는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도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대선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머뭇거림이 아닌 과감한 추진으로 국민에게 답할 때다.

사설

새로운 전기 맞아 도약할 전북 창업생태계

전북 창업생태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6개 팀(TIPS) 운영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민간주도 창업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는 도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팀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에 선투자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6개 운영사는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특화된 창업기업 육성에 나선다.

그간 전북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내에서 활동하는 팀스 운영사가 부재하면서 유망 창업기업들의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지난 2년간 5개 운영사를 지원해 60개 팀을 육성하고 이 중 13개 팀이 팀스에 최종 선정돼 44억의 민간 투자와 121억 규모의 정부 자금을 유치한 성과는 이번 사업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올해는 도전 기업 수를 기존 40개 팀에서 60개 팀으로 확대하고 특화 분야를 더욱 세분화했다. K-콘텐츠·ICT, 바이오·헬스케어, 방산 분야는 유지하는 한편, 기후테크 산업은 모빌리티·이차전지와 순환경제로 나누어 지역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는 지역의 주력 산업과 창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려

는 전략적 접근이다. 최종 선정된 6개 운영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 창업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역량을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유망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창업생태계 조성은 단기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민간 주도의 역동성과 함께,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 사업화, 인재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팀스 운영사와 창업팀 간의 유기적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풍성한 창업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창업은 고립된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 전체가 창업 친화적 문화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북도의 시도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려는 전국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 의존형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창업을 이끌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다. 전북이 이번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타 지역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전북 창업생태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대한민국 창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금요시선

오월 - 소포리에서 / 박재구

그 보리밭에선  
작은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산 다랑쥐논들의  
경계를 가만히 흔들고  
멀리서 날아온 송향가루가  
전설처럼 마을을 덮었다  
그 보리밭에선  
해질 무렵까지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굵은 등 위로  
마을의 불빛들  
희미하게 피어나고  
소쩍새 울음 피나게  
사람들의 저녁밥상을  
적실 때에도  
산동성이 그 보리밭에선  
하모니카 소리가 들렸다

시인 약력 : 1954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숭실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서 '사평역에서'가 당선돼 등단했다. 시집으로 '서울 세노야', '참 맑은 물살' 등이 있고 기행 산문집으로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이 있다. 동화집 '아기 참새 찌꾸', '낙타풀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 등을 냈다. 1992년 제10회 신동엽 창작자금을 받아 시집 '참 맑은 물살'을 펴냈으며, 동서문학상을 수상했다.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순천대학교 명예교수다.

독자광장

영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공로자! 명품 조연 의용소방대!



유혜진, 김윤석, 안내상, 오달수, 박철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영화배우 중에서도 주로 조연을 맡는 배우들이다. 영화는 주인공들의 매력과 인기에 의해 성공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품 조연 배우들의 존재는 영화에 더욱 빛을 더해 주며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으로 인해 영화가 더욱 흥행하는 경우도 있다.

산불 재난이라는 영화의 현장에도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해준 명품 조연 배우들이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청 등지에서는 역대급 대형산불이 발생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큰 피해가 났으며, 전북 지역에서도 정읍, 무주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명, 재산 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영화에서의 주인공 주연배우, 조연배우처럼 재난 현장에도 주인공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과 도움을 주는 여러 협력 기관들이 있

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청, 지자체는 주관기관으로, 소방, 경찰, 군부대 등은 협력 기관으로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대로 역할을 한다.

소방기관은 산불에 있어 주인공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민가 방어를 중심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한다. 소방기관에 직접 속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의용소방대이고 조직의 구성원인 의용소방대원들이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둔 단체로서 엄연히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정 단체이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평소에는 산불 예방과 대응 지원에 노력하고 특히, 산불 취약 시기 먼 단위 지역별로 산불 예방 캠페인, 논·밭 두렁 소각 금지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필요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평소 교육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은 이번 3월 산불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기관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산불 초기에는 신고 및 진화, 인명 대피, 구조, 길 안내, 물자 지원 등을 통해 산림청, 지자체, 소방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의 이장으로서 초기 신고 및 인명 대피로 큰 피해를 막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나중에 알려져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자신의 공로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단체의 특성상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지만 묵묵히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초기 신고, 마을 주민 대피, 초기 진화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준 덕분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불이 꺼진 후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를 입은 마을 이재민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폐기물 처리, 세탁 봉사, 집안 청소 등의 복구 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우리 지역 정읍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2006년부터 영·호남 자매결연을 맺은 하동군에 산불 피해가 발생하자 대원들이

심시일반 모은 성금을 하동군청을 직접 찾아 기탁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곳곳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헬기로서 산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고 큰 역할을 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노력이 모여져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산불 재난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불 예방, 초기 대응,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온정을 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정읍소방서 대응예방과 김수호 소방장

문화재 열전



용담사 석등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석등
- 지정일 - 2019년 12월 20일
- 소재지 - 남원시 원천로 165-26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5월 2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민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익산시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8-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서동축제 야간전경 <사진=익산시>

5월 3~6일 중앙체육공원·서동공원 일원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슬로건  
 무왕행차 퍼레이드·체험·공연 등 다채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 '2025 익산서동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달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앙체육공원과 서동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익산만의 백제 이야기를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풀어낸다.  
 축제는 △무왕행차 퍼레이드(왕의 탄생) △무왕이 되어라 RPG(금빛 서동) △서동별빛정원(사랑의 연) △무왕의 도장(무왕의 꿈)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백제 무왕의 생애와 사랑,

꿈을 담은 서사를 선보인다.  
 개막일인 3일에는 익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와 함께, 백제 30대 무왕의 행차를 재현한 '무왕행차 퍼레이드'가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장엄하게 펼쳐진다.  
 퍼레이드는 △용의 탄생 △도전과 시련 △용기와 성장 △왕의 즉위 △무왕의 꿈 등으로 구성된 공연형 퍼레이드로, 무왕의 서사를 극적으로 풀어내며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가수 KCM과 박세욱, 박주희, 장영우, 철희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장에 흥을 더한다.

4~6일 서동공원 일원에서는 백제 문화체험과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서동에술터와 백제 옷 입기 체험, 코끼리 열차, 어린이 미술쇼·풍선쇼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휴 내내 활기를 더한다.  
 먹거리와 휴식 공간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지역 대표 브랜드인 다사랑치킨과 세븐브로이가 함께 선보이는 치킨과 맥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코아 바이오'의 건강 음료 콤부차 제공 등 다채로운 즐거움이 준비돼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서동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백제 무왕의 역사적 서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익산만의 대표 콘텐츠"라며 "시민과 관람객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역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